

확 바뀐 삼성카드, 10년만에 새 브랜드 론칭



삼성카드가 고객 취향에 중점을 둔 '삼성 iD 카드'를 선보이며 브랜드와 상품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전기차 이용 고객을 위한 '삼성 iDEV 카드'(왼쪽)와 청소년 전용 카드 상품인 '삼성 iD 포켓 카드'.

사진제공 | 삼성카드

나를 말해주는 '삼성 iD 카드'...취향별 혜택 평평

삼성카드가 10년 만에 브랜드와 상품 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숫자 카드에서 벗어나 고객 취향에 중점을 둔 '삼성 iD 카드'를 론칭한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반영한 나를 알고, 나를 담고, 나를 말해주는 카드'라는 의미를 담았다. 취향에 중점을 둔만큼 온·오프라인, 전기차, 청소년 등 다양한 테마의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온라인 중심 혜택 담은 **iD ON**
오프라인 선호 고객엔 **iD ALL**
전기차 오너들을 위한 **iDEV**
청소년을 위해 태어난 **iD 포켓**

●선택형 디자인과 친환경 테마가 특징

먼저 새로운 구성의 카드 디자인이 눈에 띈다. 상품별로 고객이 취향에 맞춰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디자인을,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익숙한 세로 방향 플레이트를 적용했다. 친환경 테마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카드 플레이트와 저탄소 용지

를 사용한 발급 패키지 등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멋과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 취향까지 충족시켰다.

대표 상품으로 '삼성 iDON 카드'와 '삼성 iD ALL 카드'가 꼽힌다. '삼성 iDON 카드'는 온라인 생활이 중심인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커피전문점, 배달앱, 멜리 중 매월 가장 많이 쓴 영역에서 30%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통, 이동통신, 스트리밍에서 이용하면 10%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제공한다. 온라인 간편결제 및 해외결제 시 3%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준다.

'삼성 iD ALL 카드'는 오프라인 선호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할인형과 포인트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중 매월 가장 많이 쓴 영역에서 5% 결제일 할인이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 원까지 제공된다. 주유, 이동통신, 아파트 관리비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2.5%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 원까지 준다.

●전기차 고객 및 청소년 전용 카드 선보여

특정 업종 및 트렌드·이슈 등의 고객 니즈를 담은 상품도 선보였다. 전기차 이용 고객을 위한 '삼성 iDEV 카드'가 대표적이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 시 전기차 충전요금 50% 결제일 할인을 월 최대 2만 원까지, 전월 이용금액이 60만 원 이상 시 전기차 충전요금 70% 결제일 할인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제공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환경부, 테슬라 수퍼차저, 한국전력 등 다양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이용 고객을 위한 자동차 서비스 관련 혜택도 담았다. 먼저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시 주차장·하이패스·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10% 결제일 할인(통합 월 최대 5000원)을 준다. 또 이 카드로 현대대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30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 결제일 할인도 연 1회 제공한다.

청소년 전용 카드 상품인 '삼성 iD 포켓 카드'도 내놓았다. 삼성카드는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거나 부

모가 자녀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을 줄인 상품이다. 또 부모가 자녀의 지출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자녀의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돕고 신용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금액 및 할인 한도 없이 기본 1%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월 이용금액이 10만 원 이상 시 대중교통 2% 할인을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한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배달앱, 멜리 등에서 이용 시 전월 이용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8% 결제일 할인이 월 최대 5000원까지 제공된다.

이용 가능 업종과 월 이용한도를 제한해 자녀의 안전한 카드 이용을 돕는다. 대중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병원·약국, 식음료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월 이용 한도는 10만 원이다. 다만 부모의 요청 시 월 50만 원까지 상한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고객 취향을 담아내는 삼성카드가 될 것"이라며 "iD카드를 통해 고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금융

스포츠동아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15

New-Biz추진 및 DT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장소 | 우리은행 광동연동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리은행

우리은행-한화 금융 3사, 디지털 사업 협력

우리은행이 한화 금융계열 3사(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 한화자산운용)와 디지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첫 공동사업으로 우리WON뱅킹에 한화투자증권의 주식투자서비스를 탑재한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글로벌 협력, 한화생명 신규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동 마케팅, 한화자산운용과 제휴를 통한 연금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등의 사업을 확대한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 금융계열사와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디지털금융 선도 등 지속적인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롯데카드 정기구독 '드라이빙케어' 선택



롯데카드가 운전자 편의를 제공하는 신규 정기구독 서비스 '드라이빙케어'(사진)를 선보였다. 월 9900원에 매월 주유 1만 원 할인쿠폰, GS칼텍스 세차 3000원 할인쿠폰, 모두의 주차장 2000원 할인쿠폰을 준다. 또 연 1회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차량경정비 쿠폰북, 최대 8만 원 타이어 파손 보상 보험, 차량 정보·시세·금융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스피드메이트 와이퍼 교환권을 증정한다. 회사 측은 "향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테마의 구독경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 하나원큐서 '신차 견적 서비스' 선택



하나은행이 모바일뱅킹 하나원큐에서 '신차 견적 서비스'(사진)를 선보였다. 합리적 자동차 소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모바일 앱에서 차종과 옵션에 따른 견적을 간편히 산출할 수 있다. 자동차 금융은 물론 세제 혜택, 지원금 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 고객이 구입한 차량의 잔존가치와 금융 현황을 분석해 최적의 중고차 매각 시점을 알려주는 '내차 판매 타이머 설정'도 공개했다. 회사 측은 "다양한 생활 밀접 서비스와 협업을 통해 하나원큐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친환경 소비 실천하면 우대금리”...신한은행, ESG 경영 앞장

아름다운 용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대조건 만족 시 적금 최고 2.6%

신한은행이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생활 속 친환경 및 가치소비를 실천하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 예·적금'을 내놓았다. 상품명의 용기는 '그릇(bottle)'과 '용감하다(courage)'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용기를 응원한다는 취지다.

정기예금은 10만좌 한도로 출시되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최대 3000만 원까지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 연 1.65%에 0.15%포인트를 우대해 최고 1.8% 금리다. 우대금리는 아름다운 용기 적금 가입,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알고 실천하기 서약, 비대면·무통장·디지털창구 신규고객, 예금주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받을 수 있다.

적금은 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1년제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1.1%에 정기예금과 동일한 우대조건을 3가지 이상

충족하면 각 0.5%포인트씩 최대 1.5% 포인트를 제공해 최고 2.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8일 전 국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한 친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가 목적이다. 신한은행은 친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매 인센티브 발굴 및 홍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아름다운 용기 예·적금'

회사 측은 "녹색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소비 관련 환경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했다"며 "향후 친환경표지 중심의 녹색소비 및 생산 순순환을 위해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14일 (화) 음력: 11월 1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웅달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아득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 등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스스로 찾아서 움직여야 이루어진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치밀한 계획과 판단 아래 일을 추진해야 한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원숭이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소가 등을 빌릴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격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때때는 이루어진다. 자칫 일만 커지게 된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물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의욕이 없는 날이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끈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멋뜻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감언이설에 조심한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행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실속은 있는 날이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침착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	

오늘의 날씨

서울 30/30	인천 30/30	춘천 30/30
-1 / 7	1 / 9	-6 / 5
강릉 0/0	대전 30/30	전주 30/30
2 / 10	-2 / 8	-1 / 9
광주 30/20	대구 20/20	부산 0/0
-1 / 10	-3 / 8	0 / 10
창원 0/0	제주 3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3 / 9	6 / 14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2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